

19. 조선의 두유, 세모승. 하나가리 콩을 지키는 사람들

조선의 두유는 어땠을까? 대충 한여름 갈증 날 때 찬 막걸리보다는 선호도 면에서는 훨씬 좋았던 것 같다. 이걸 마시기 위해 백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한 모금 마시면 겨드랑이가 으스스할 정도로 시원했으니 그 맛이 오죽했을까. 한 사발만 마셔도 혈떡증을 가라앉힐 정도였으니 간식으로도 충분했던 조선의 두유였다.

이 조선의 두유는 아마 봉은사 절집에서도 만들었던 모양이다. 절집 스님들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단백질 섭취가 필요했을 터, 이 세모승이라는 두유를 만들었는데 맛이 제법이라 사람들에게 보시로 나눠주기도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니 그 공덕을 자랑할 만했던 모양이다.

바닷가 가사리에 이기梨祈라는 약초- 아마 돌배가 아닌가 한다.-와 함께 들기름으로 볶고 누리끼리할 때까지 달달 볶고 끓여 한천으로 만들어 조각조각 낸다. 하나가리 콩으로 맷돌에 갈아 눈보다 하얀 콩국을 만드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물이다. 차 맛은 반이 물맛이라고 할 정도로 물을 가려 차를 끓였는데, 콩국을 만드는데 물도 마찬가지다. 물맛이 좋아야 콩국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 콩국을 만드는데는 길가의 평범한 찬 우물이면 족하다는데, 그 단서가 이채롭다. 덕이 있는 길가의 찬 우물이 제격이다. 물에 덕이 있다는 것은 공동우물을 뜻하지 않았을까. 콩국은 나누어 먹어야 제맛이라는 속내가 숨어있다.

이렇게 콩국을 만든 후 소금을 살짝 뿌린 후 마시면 된다. 그러면 더위에 지치고 열이 난 비장을 한꺼번에 씻어 낼 수 있는 것이 조선의 두유다. 이름 붙이길 세모승, 털 난 중이라는 것이다. 콩깍지에 난 털과 분명히 콩알을 보면 중이 머리를 깎은 것과 같은데, 콩깍지를 보면 분명 잔털이 나 있으니 털이 난 중이란 분명 콩이다. 더할 나위 없다.

추사 선생이 남긴 세모승이란 시를 보자.

세모승(細毛僧)

가는 털 총총 돋고 실을 칭칭 감긴 것을 / 細毛蒙茸?亂絲
산 중이 이기 함께 기름에다 볶아내서 / 山僧膏熬同梨祈
다리 꺾인 솔가에 조각조각 오려내니 / 折脚?邊切片片
볶고 누른 그 빛깔은 패유리를 뚫는구나 / 紺黃色透吠琉璃
콩물 타서 국 만들면 눈보다 더 하얗고 / 羹以菽乳白勝雪
소금을 뿌려 두면 배보다 상쾌하네 / ?之鹽晶快於梨

완당전집 발췌

사실 이때 쓴 콩이 하나가리 콩이라는 것은 억지다. 무슨 콩을 썼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콩국을 만드는데 반드시 하나가리 콩으로 써야 한다는 법도 없다.

그런데도 내가 굳이 하나가리 콩이라고 우기는 것은 이 음식이 절집 음식이라는 것이다. 절집 음식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단백질 섭취다. 스님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은 식물성 밖에 없는데, 이와 콩국을 해 먹으려면 단백질이 충분한 하나가리 콩이 제격이 아닐까 해서다.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심었다는 홀아비 밤콩은 들크진한 당질이 많고 쉽게 물러 밤밀콩으로 쓰이는 등 트임이 있는 약간 납작한 콩인 데 반해서 주로 산간 지역에서 많이 심었다는 하나가리 콩은 단백질 함량이 많아 두부나 메주를 쑤는 데 제격이다. 콩이 굵고 모양이 동글동

글하다.

그렇게라도 명분을 쌓아 수집 나선 것이 하나가리 콩이다. 우리 박물관의 토종 하나가리 콩은 대부분 산지에서 수집됐는데, 강원도 접경인 양평 화전민촌이나 강원도 일대 또는 경상도 산중이다. 우리가 다시 찾아 나선 곳은 경북 봉화군 재전면과 소천면 일대의 산골 마을이다.

봉화는 주로 산간지대로 이뤄진 지역으로 지금도 많은 토종을 지켜지고 있다. 지금은 정부에서 씨드볼트를 만들어 토종을 영구 보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봉화로 가는 길은 참으로 가슴 찡하고 아픈 여정이었다.

봉화 농민과 연이 닿은 것은 지난 6월 지인을 통해 유금자 선생을 소개받았다. 3개월 시한부를 살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허약해져 마치 리트머스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다. 우리는 콩이 익었을 가을쯤에 갔으면 했지만, 그녀는 조금 서둘러 주기를 바랐다. 그러한 급한 마음을 두고 10월 말에서야 시간을 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넉 달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리를 만났을 때 토종에 대한 열정으로 푸른 리트머스가 아침 태양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사코 말렸지만, 유 선생은 봉화 토종 수집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다. 마지막 날 조금 지친다며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 차 한 잔을 내주고 방으로 들어가 누울 때까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같이 웃고, 같이 걸었다. 같이 찾았다. 무엇이였을까?

이때 유 선생에 의해 소개받은 분이 바로 이상식 회장이었다.

운이 좋았다. 그는 누구 찾아갈 것도 없이 그분이 사는 동네 흙안말에 데리고 들어갔다. 흙처럼 오목하게 생긴 마을이기도 했고, 그 마을을 관통하는 길이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지나던 길이라 자부심이 강했다. 마을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며 소개했고, 하나가리 콩을 심은 밭이 나오면 대수롭지않게 손으로 가리키었다. 아직은 여물지 않았지만, 가끔 여문 기색이 보이면 따서 주기도 했다. 굳이 애써 찾을 일도 아니었다. 여기저기 심고 있었다. 사족이지만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 콩이 화전할 때부터 심어왔었는데, 더 낡은 콩을 보지 못해 지금까지 심고 있다는 것이다. 화전의 꽃은 콩이었다. 콩 중에는 또 하나가리 콩이 꽃이었다.

- 그래요? 화전했던 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 그럼!

- 가시죠?

- 뭘 가봐. 바로 내가 화전했던 사람인데!

그분은 공부로는 초학이 다였다. 8남매 중 맏형으로 태어나 동생들을 건사하느라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 화전을 해서 농사를 지었다 했다. 우리는 찻잔을 들고 토방에 앉아 그분의 화전 얘기에 귀 기울였다.

화전을 하려면 우선 산을 정해야 한다. 화전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정착해서 계속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점점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 마을의 화전 흔적은 산에 낙엽송이나 잣나무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60년대 말 북한 공비들을 막는다고 금지하면서 화전 밭에 낙엽송이나 잣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땅이 정해지면 경계를 긋고 그 안의 큰 나무들의 껍질을 벗겨 죽인다. 일 년 전부터다. 큰 나무가 죽어 마르기를 기다리다 베어낸다. 이를 두고 화전 벌채라고 한다. 이듬해 4월쯤에 잔 나무들을 베어내고 풋장을 베어내어 말린다. 훌륭한 거름 밋천이다. 어느 정도 불길을 잡을 정도로 잔 나무들이 없어지면 서둘러 방화대를 설치하기 위해 널찍한 골을 만들거나 불이 넘지 않게 마른 풀들을 치운다.

이 정도면 준비가 끝이 난다. 5월이다. 제일 긴장된 순간이 온다, 불이 경계를 넘으면 큰 산 불로 변진다. 4·5 명이 사방을 둘러싸고 위쪽부터 불을 놓고 반쯤 타 내려오면 아래쪽에서 맞불을 놓는다. 그러면 끝이다.

그리고 비를 기다린다. 빗물에 재가 땅속으로 스며들기를 기다렸다가 땅파기를 시작한다. 곱괭이와 톱이 전부였다. 제일 힘든 작업이었다.

신농씨의 본을받아 에이여라 광이야
이팔발을 과가지고 에이여라 광이야
누강먹고 누강사나 에이여라 광이야
광이농사 잘도된다 에이여라 광이야

완전한 밭이 아니다. 쟁기를 댈 수도 없다. 이를 두고 ‘부데기’라 불렀다. 이 부데기에는 던지기만 해도 난다는 감자나 옥수수 등을 심었다.

이듬해가 되어야 비로소 화전밭이 되는데, 그곳에는 콩을 심는다. 화전의 꽃이다. 화전의 목표가 이뤄진 것이다. 하나가리 콩이 힘을 발휘할 때다. 화전은 그 연한이 짧아 뽑을 수 있을 때 수확을 최대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화전에는 콩과 보리를 이어심기 한다. 보리를 심고 보리를 베기 전에 보릿골에 콩을 심는다. 이걸 그루 콩이라 불렀고, 보리를 벤 다음 보리밭을 쟁기로 얹어 복을 준다.

꽃장을 태운 잿거름이 효능을 다해 땅이 척박해지면 메밀을 심는다. 거름을 내기 어려운 땅은 다시 산이 된다.

마찬가지로 봉화 사람은 죽어서 모두 산이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 선생의 부고가 왔다. 슬퍼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불꽃을 토종을 찾는데 살랐으니 차라리 기쁘게 영면하시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녀도 산이 됐으리라.